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11월 10일(금)
(음력 9월 22일)

Пятница
10 ноября 2017 г.
№ 44(11676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단신

알렉산드르 제르노워이 부지사 사임

사할린주 알렉산드르 제르노워이 제1 부지사가 11월 말에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임 원인은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지만 일설로는 임무를 수행에 미진했다는 설이 떠돌았다. 2015년 4월부터 부지사로 활동한 그는 그 전에 드미트리 메드웨제브 총리 보좌관으로 활동했었다.

사할린주정부 내에 인사이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오케스트라, 한국서 순회공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오케스트라단(지회자 아흐나자란 켄그란, 연주자 29명)이 순회공연으로 11월 4일 한국으로 떠났다. 한국에서 일정은 국제문화공연교류회(회장 양평수)가 기획하고 주관했다. 오케스트라단은 대구, 단양, 평택, 광명, 수원, 서울, 부산 총 7곳에서 공연을 할 계획이다. 음악가들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7개 공연 중 두 공연은 한국 아티스트들과 합동공연다. 13일 부산에서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라단은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오케스트라는 장기간 국제문화공연교류회와 협력하면서 그 동안 한국 음악가들과 함께 많은 공연을 해왔으며 한국에서도 해마다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사할린주정부, <빌라인> 모바일통신 회사와 협력협정 체결

지난 8일(수) 사할린주정부와 <임펠콤> 주식회사가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서에는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마코와 <임펠콤>(빌라인 상표) 연해주 클러스터 지도자 알렉산드르 켄펠라코브가 서명했다.

양측은 주내 도로 통신망의 제반시설 구축, 섬지역 경제에 투자 유치, 모바일 서비스의 품질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현재 사할린주에서는 도로 1400킬로미터 감시에 60%만 도로 감시망이 실행되고 있다. 이전에 주정부는 고속도로에서 100% 도로 통신망 구축을 보장하는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이미 MTC 모바일 통신회사와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제외동포재단 대표, 사할린한인 현황 파악

장기간 동안 제외동포재단은 모국방문을 하지 못하고 일찍이 사망한 1세대의 자녀들 모국방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해마다 40-60명의 2세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찾고 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에 인솔 차 나온 제외동포재단 이은정 경영지원부 과장대우와 김보라 동포단체지원부 직원은 지난 3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회 회장, 김홍지 주노인회 회장, 김춘자 우리말방송 국장, 배 워토리아 새고려신문 사장과 만나 위 단체 현황, 문제점 등 실태를 파악했다. 제외동포재단 관계자들은 <한 가정에서> 기획 종료 공연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소속 <세종>한글학교 수업을 다녀갔다.

4일(토)에는 사망한 1세대 부모의 자녀들 15명과 함께 제외동포재단 대표들이 한국으로 떠났다.



▲ 지난 3일(금) 한인문화센터에서 <한 가정에서> 기획의 일환으로 마지막 행사 - 공연이 진행되었다.
(이예식기자 촬영) 관련 기사 3면에 게재.

사할린주예산 공청회에서

새 사할린 예산은 계획된 사회적 방면 유지, 경제발전 지원 충족될 전망

이미 보도한 바, 지난 7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옥차브리>영화관에서 2018-2020년간 사할린주 예산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공청회에는 사할린주내 전 지역을 대표하는 5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TV와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생방송되었다.

공청회는 사할린주 개발 총결 발표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3년간에 사할린은 주택 및 도로건설량과 재정비 사업 속도에 있어 극동지역에서 선두에 서게 되었다. 부분적으로 지역에 약 1000곳의 주택단지 내 뜰을 개건했다.

농촌경제도 급격히 발달되었다. 주내에서는 육류, 우유, 계란, 채소 생산도 증가되었다. 실업률은 사할린주가 극동지역에서 가장 낮은 지표(0.7%)로 나왔고 출생률 증가와 주민들의 평균 수명도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인 변화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나타나 3000명을 수용할 유치원 19곳 건축, 주 장애인재활센터와 <마야조크>미성년사회복지재활센터를 포함해 특수사회복지 시설 5개가 준공되었다.

보건 분야에서는 조산원 14곳, 실험실 1곳, 병원들에 새로운 6개의 분과가 개설되었다. 이 시설을 위해 최신 장비

들도 확보했다. 섬지역 의료계에는 약 1000명의 의료전문가들이 종사하고 있다. 이 모든 조치들의 결과로 암과 심장병,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50% 감소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약 50개 대상이 실시되었다. 주택공공사업 제부문에서 예산의 투자가 이뤄져 주차구역 정비, 전기, 가스, 수도 통신망이 새로이 정비되었다. 2016년 총결산 주내에서는 상수도관 130킬로미터를 교체했다.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에 따르면 2018-2020년의 예산은 사회적 방면을 유지할 방침이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협정으로 <사할린-2> 석유 프로젝트로 얻는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예산은 전 사회적 상황을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다. 섬지역에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예산대로 실시해 갈 예정이다.

안나 하르첸코 사할린주 재정부 장관은 2018년 주내 예산은 적자 없이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수입과 지출 내역(1112억 루블리)은 똑같아 현 예산과 대등하다. 지출액의 절반 이상(600억 루블리)은 사회 분야에 배당할 예정으로 보건, 교육, 문화 및 스포츠 분야들이 지원을 받게 된다. 가장 큰 지원은

<사회적 정책> 부문으로 220억 루블리를 배당할 계획이다.

내년에 사할린주에 주민 약 20만 명이 각기 정도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는데 사회지원 대상의 목록은 유지할 뿐만 아니라 확대도 요구되었다. 예를 들어, 새해부터는 19세-25세 연령의 산모들에게는 일시 보조금 15만 루블리를 지원, 저소득층의 가정에는 아이들의 교복, 유모차, 신생아를 위한 용품의 비용에 보조금을 지급,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구입에 100만 루블리까지 지원한다.

사할린 주민들의 주택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난방비)는 전과 같이 유지되며 이러한 목적으로 2018년도 예산 계획에 75억 루블리를 지출할 전망이다.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공공 분야 근로자들의 봉급도 인상되는데 올해 10% 인상 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4% 인상된다. 예산 지출에 있어 염두에 둔 것은 주 베테랑·장애인시설, 코르사코브 베테랑 시설, 사흐초르스크 장애인·양로원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건축 및 개건작업이다.

"2018년에는 교육 분야에 195억 루블리를 지급할 예정으로 이는 2017년 수준보다 16% 더 많다."고 하르첸코 장관은 밝혔다.

(2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2018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76루블리 2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영사관 황명희 소장 사할린 북부지역 방문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소장 황명희)가 지난 11.2~4 간 사할린 북부지역(우글레고르스크, 크라스노고르스크, 토마리)을 방문했다. 황 소장은 1세 동포와 지방한인회 간부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인회와 한글학교 운영현황과 애로·민원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출장소는 1세 동포들을 위한 새해 선물을 미리 전달하였으며, 우글레고르스크와 토마리 향토박물관에는 전통인형을 기증하기도 했다. 방문 지역 한인들은 황 소장의 방문을 매우 환영하며, 관심과 경청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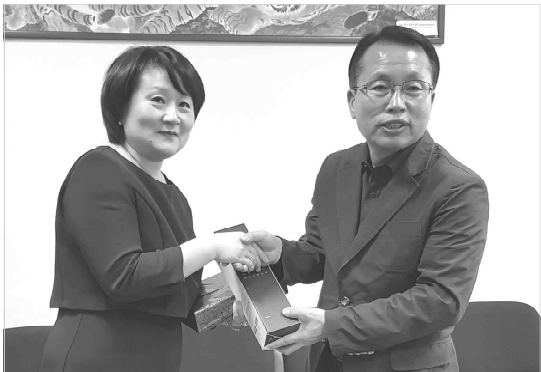
한편, 황 소장은 지난 9월 27~28일에도 포토나이스크를 방문하여 동포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우글레고르스크 동포간담회(11.03)

안산시의회 대표단 사할린방문

지난 3일(금) 안산시 의원대표단(단장 정승현 부의장, 13명)이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두마를 공식적으로 방문했다. 방문목적은 의원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협력활동을 논의하는 데 있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회의는 안산시와 지난 2011년에 우호협력을 체결했다.

한국 손님들을 환영한 블라디미르 자이체브 시의장 대행은 "오늘 회의가 양 도시 간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데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두마는 적극적으로 국제관계를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표명했다.

그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회의의 구조와 활동 방향을 소개하기도 했다.

안산시 의원대표단 측에서도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의 활동, 구조, 주요 사업 등을 소개했다.

안산 측은 영주귀국하여 안산고향마을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 625명의 현황과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알렸다.

답사를 한 안산시의회 정승현 부의장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회의와 안산시의회는 우호협력관계를 수립했지만, 여러가지 사적으로 양 의회 간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며 "오늘 양 의회의 의원 간 만남이 상호 간 교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형식적인 우호협력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양 의회가 더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서로 간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보다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안산시 부의장은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자이체브 시의장 대행은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연초에 만났으면 하는 제안을 했다. 그외 여러 제안이 의논되었다.

실질적인 교류를 원하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안산시 의원들은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길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 안산시 대표단은 사할린한인문화센터를 찾고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우리말방송 김춘자 국장,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아 사장과 만나 사할린한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산고향 마을에 계시는 동포어르신들에 관한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배순신기자)

사할린주예산 공청회에서

새 사할린 예산은 계획된 사회적 방면 유지, 경제발전 지원 충족될 전망

(1면의 계속)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유치원 25개소가 건설되고 개건되었다. 이후 주 내에 새로운 학교 건설에 나선다. 새 학교는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스미르니흐, 노글리키, 마카로브와 달네예에 건축하고 또한 투고워예에는 장애아들을 위한 학교를, 유즈노사할린스크 제6, 제26 학교와 제1, 제3 김나지아에는 부속 건물을 건축할 계획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새 응급진료소 개설, 주 병원쪽에 피부비뇨기질환 진료소를 증축할 전망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빅코브촌에 문화회관, 네크라소브카 촌과 샤호초르스크에 문화발전센터를 건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는 사할린 동식물원을 개건, 다기능문화센터를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9개의 일반체육관(코르사코브구역, 스미르니흐구역,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건설 지원, 우글레고르스크, 토마리, 오하의 운동장 개건,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파르타크>경기장에는 축구장을 수리할 계획이다.

내년에 사할린과 쿠릴에는 약 40킬로미터의 아스팔트포장의 신도로와 8개 교량이 건설, 운영된다. 노후주택, 붕괴주택으로부터 신주거지로의 이전프로그램으로 주택 2만m²를 건축, 주택 600세대는 임대아파트로 신축할 예정이다. 지역의 신경제정책의 목표는 석유가스 분야가 아닌 경제 분야를 발전시켜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가들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18년에 220억 루블리를 지급할 예정이다.

주내 선두개발지역들에서는 특

혜지원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즈나야>선도개발지역 개발로 앞으로 주는 완전히 농산물을 자급하게 된다. 야니와구역 타라나이 마을에서는 극동에서 가장 큰 양돈장이 이미 운영을 시작했고 라즈돌노예와 트로이츠코예 촌들에서는 새 낙농장을 곧 준공,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외곽에는 8헥타르의 온실장 공사도 마무리하는 단계다.

<쿠릴>선도개발지역은 특화 개발로 들어간다. 쉬코탄 섬에 수증 자원 채취, 제조 및 가공 공장을 건설 중으로 기획에 따라 지역은 세금 수익으로 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7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전망이다.

<고르니 워스두흐>선도개발지역의 목표는 관광객 유치이며 현재 건설 중인 바이애슬론 센터와 워터파크는 주요 과제다. 이외에도 불세워크 산기슭에 건설 중인 현대적인 온천단지와 호무도워 공항에 새 공항건물 공사 계획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3년간 예산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다. 주민들은 주택 구입 시 짧은 가정을 돕고, 도서 정돈 작업, 학교 및 병원 건설에 주예산 지출을 확대해 줄길 요청했다. 더불어 지역 가스화 속도를 높이고 극동지역에 분배된 토지 소유자들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공청회에서 사할린주정부와 주두마 지도부는 정부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예산을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청회 참석자의 대다수(453명)는 소개된 3년간의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사할린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이 모 저 모

사할린 어린이오케스트라단, 하얼빈에서 공연

사할린 어린이오케스트라단이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에서 순회공연을 마쳤다.

10월 말에 사할린 어린이오케스트라단은 블라고웨센스크와 중국 헤이허 시에서 성공적으로 연주를 하고 마지막 두 공연은 11월 초에 하얼빈 시에서 있었다.

사할린 어린이오케스트라의 첫 공연은 현지 피오네르회관에서 브람스, 모차르트 등 유명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했고 대다수 연주된 곡목들은 러시아의 작곡가인 프로코피예프, 하차투란, 블란테르의 곡들이었다. 중국 오케스트라단도 역시 중국 작곡가들의 곡을 소개했다. 마지막 무대는 러시아와 중국 어린 음악가들의 합동의 무대였다. 무대에 100여 명의 연주자들이 동시에 올라 함께 연주한 곡목은 <영원한 우정>과 전 세계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와실리 솔로비예브-세도이의 <모스크바의 밤>이었다.

다음날 양국 오케스트라단은 하얼빈 음악원 내에 완벽한 음향시설을 갖춘 1600석의 공연장에서 연주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크나큰 경험이 되었던 것은 훌륭한 조건과 더할 나위 없는 공연장 무대에 설 기회가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훌륭강성 지역의 학생들과 함께 연주하게 된 것이다."라고 사할린 문화예술 분야에 과학적 교수법센터 엘레나 마노일렌코 센터장은 강조했다.

Сахалинский детски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дал концерты в Харбине

Сахалинский детски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завершил гастрольный тур по города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Китая. В конце октября они с успехом выступили

в Благовещенске и Хэйхэ. Заключительные два концерта уже в начале ноября островные музыканты дали в Харбине.

Первое выступление прошло в местном дворце пионеров. Сахалинцы исполнили сочинения Брамса, Моцарта и других известных композиторов.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программе островн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большая часть произведений была отведена отечественным авторам: Прокофьеву, Хачатуряну, Блантеру и другим. Китайские музыканты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ли на суд зрителей классические обработки сво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нтересной оказалась заклю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концерта, где российский и китайский дет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выступили вместе.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 сцене находились более 100 человек. Вместе дети двух стран сыграли "Дружбу на века", а также популярное во всем мире произведение Василия Соловьева-Седого "Подмосковные вечера".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юные музыканты двух стран вышли на сцену харбинской консерватории. Концертный зал на 1600 мест и потрясающая акустика.

— Без сомнения, это огромный опыт для наших детей, —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Елена Манойленко. — Они не только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выступить в прекрасных условиях, в великолепном 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но и сыграть со своими сверстниками из провинции Хэйлунцзян.

<예술의 밤>, 사할린주민 1000 여명 주향토박물관 찾아

11월 3일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예술이 연합한다.>는 기치 아래 제5회 전국문화교육행사 <예술의 밤>이 정례적으로 진행되었다. 행사 참가자들은 1000여 명이 넘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물관 로비에서는 사할린과 자연과 삶과 사랑에 대한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자작곡 축제의 수상자인 파벨 가브리코프, 드미트리 체르노브와 세르게이

차플린이 방문객들을 노래로 맞이했다.

아늑한 분위기 속에 많은 관람객들은 스스로 흥미를 끄는 행사마당을 선택하여 관람하는 가운데 박물관 모형게임과 관람을 비롯해 암모나이트 만들기, 작품성 있는 비즈공예, 장식, 형질 인형 만들기, 자수공예 배우기 등 활동교실들에도 적극 참여했다.

유아들은 다양한 색깔 모래로 문양을 장식하여 가족들을 기쁘게 했다.

화가인 나탈리아 반키나는 사람들의 가장 밝고, 친절하고, 진심 어린 정서를 종이에 표현해 내어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세르게이 우도웬코와 찌모페이 월코브는 러시아 민요를 정겹게 불렀고 아체르바이잔에서 온 민속 앙상블, <세로크>댄스 클럽, <바기라>동양무용학교 단원들의 강렬한 탱고, 살사, 사교춤과 동양춤의 신나는 리듬이 박물관의 관람객들을 흥겨운 분위기로 이끌어갔다고 주향토박물관은 전했다.

Более тысячи сахалинцев посетили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в "Ночь искусств"

3 ноя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прошла пятая ежегодная всероссийская культур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акция "Ночь искусств" под девизом "Искусство объединяет". Участниками акции стали более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 фойе музея весь вечер звучали песни о Сахалине, природе, жизни и любви — посетители встречали лауреаты фестивалей авторской песни: Павел Гавриков, Дмитрий Чернов и Сергей Цапин.

В уютной обстановке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гости сами выбирали интересные для себя площадки, посещали музейный квест и экскурсии, становились актив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мастер-классов, на которых учились изготавливать раковины аммонитов, авторскую бижутерию, украшения, тряпичных кукол, осваивали технику вышивки.

Малыши порадовали своих родных, сделав аппликации с цветным песком.

(8면에 계속)

<한 가정에서> 프로젝트 마감

지난 3일(금)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회가 추진하는 <한 가정에서>기획과 사할린주민족아삼블레야가 주최하는 <우정의 교실>기획을 마감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문화센터 공연실에 모인 참가자들을 사할린주 민족아삼블레야(민족연합회) 사르키스 아코판



회장과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이 환영했다. 회장들은 민족 전통성의 중요성, 다문화 사회 속에서 민족들 간 우호관계등을 강조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 가정에서>기획은 홈스크, 돌린스크 공연, 이예식 기자의 사진전, 한민족 동화 주제로 그림 그리기 콩쿠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할린에 거주하는 민족을 소개하는 <우정의 교실>행사로 아삼블레야 회원들은 12개 지방자치체를 찾아 좋은 반응을 받았다 한다. 교실 프로그램 중 하나는 아르메니아, 한민족, 러시아민족, 타타르 등 전통 의상 입어보기 체험이었다. 기획들은 사할린주정부 지원하에 실시되었다.

위의 기획들을 종료하는 발표행사에는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사물놀이팀 (2팀)의 풍물, <에트노스>학생들(지도 최경순)의 부채춤, 강팔용 동포가수의 한국노래, 키르기즈 디아스포라 대표의 가창, 아르만 무용가의 출연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한민족 전래동화 주제로 그림 그리기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도 있었다. 그림 그리기 콩쿠르 실시는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 과장 임 엘위라 교수와 외국어과 과장 코르베예와 인나 사할린한국어교사협회 회장이 맡았다. 심사위원장은 사할린예술전문플레즈 디자인과 조성용 과장이 했다.

임 엘위라 과장에 따르면 그림 31점이 접수되어 그중 거의 20점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2김나지아 학생들의 작품이라고 한다. 이 학교에서는 작년부터 한국어교육을 시작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학생들 외에 크라스노고르스크, 코르사코브 학생들이 콩쿠르에 참여했다. 특히 수상작은 크라스노고르스크 어린이들의 그림이 많았다. 수상작 12점은 2018년 벽 달력에 게재된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홈스크한인회, 한민족문화 알리기 행사 진행

지난 6일(월) 홈스크 중앙문화회관에서 홈스크한인회(회장 박영순) 주최로 <에트노스-클래스>세미나가 펼쳐졌다. 한민족 문화의 날 행사의 목적은 한민족의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대중화하는 데 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은 전시된 돌상, 한복과 민족악기를 관람할 수 있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주한인여성회 회원들도 행사장을 방문했다.

행사 사회를 맡은 이진선 홈스크 <마천>한글학교 강사는 우선 사할린에 한민족의 이주역사와 한민족의 주기적 생활양식을 간단히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생일인 돌잡이, 돌잔치 진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전통의식에 대한 설명은 신연자 홈스크한인회 운영위원이 했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한복과 사물놀이가 악기(징, 북, 장고, 팽과리)가 소개가 되었다.

한글학교 3인조는 <나비>란 한국노래를 불러주었고 <사물놀이>팀은 신나는 풍물을 들려주기도 했다.

세미나 2부는 한민족 요리 교실로 이어졌다. 2부는 박영순 홈스크한인회 회장이 직접 진행하였다. 한인회 회원들은 이날 잔치국수, 두부구이, 불고기, 계란말이를 맛있게 만들수 있는 비법도 가르쳐주었다. 한식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은 시식을 하며 만족해 했다.

홈스크한인회 회장 박영순씨는 "올해 홈스크한인회가 굉장히 많은 활동과 행사를 했고 이 행사조직에도 꽤 많은 신경을 썼다. 이 자리를 빌어 홈스크한인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홈스크한인회의 모든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주한인회, 박순옥 회장님께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박순옥 주한인회장도 홈스크한인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기대를 표명했다.



김주환 사할린한국교육원장은 많은 시민들이 한민족전통풍습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반감을 표했다.

김웨철 주한인여성회 회장도 전통민족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더욱더 많았으면 좋겠다며 홈스크한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사할린주한인회, 주여성회에서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배순신기자)

1937년 사할린 한인 중앙아시아 집단이주

— 새로운 정착지로 이주와 정주의 특징 —
진 율리아 (역사학박사, 사할린국립문서보관소)
장 원창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서울)
(42호의 계속)

당기관의 업무를 이주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소비에트 기관을 돕는 일로 전환한다. 배치와 관련된 결정하지 못한 주된 어려움은 대부분 어부인 2,000가구를 카라칼파키에 배치하고 일자리를 주는 일이다. 마지막 항해로 11월에 도착한 그들에게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아랄해에는 강한 바람과 아무르다리아 하류는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로 여객선의 운항은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이 지역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지역이다. 공화국 전체의 기관들의 힘을 동원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아랄스크와 아무르다리아 기선회사에 무조건적으로 이주민을 정주 장소에 운송하여 줄 것을 인민위원회의 지급명령을 바란다."

11월 14일 카라칼파키의 이주민에 대한 정보가 보고되었다. 10월에 800가구 3,620명이 이주되었다. 11월 13일까지는 650가구 3,100명, 그리고 10월 17일과 18일에는 850가구 3,900명이 예정되었다. 즉 전체적으로 카라칼파키에 2,300가구 10,620명이 계획되었다. 여기에 이 중 대부분 어부인 1,200가구에서 1,500가구는 물고기를 직접 잡을 수 있는 구역(꾼그라드, 무이나크)으로 배치되었다. 또한 아랄스크에서 613가구 2,211명은 우즈베키스탄 구역(농업콜호즈, 공장수리공, 공무원)으로 배치를 위해 이송되어야 했다.

그런데 아랄해를 거친 재이동은 많은 문제들을 야

기했다. 타즈메도프는 메에르에게 11월 16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3척의 모든 기선은 아랄스크 방향으로 항해 중 8-9도의 강풍으로 팔트크로 부터 150킬로 지점의 바다 위에 닻으로 정박해 있다. 막심 고리키호의 거룻배가 한 척이 부러져서 옮겨졌다. 영하 15도의 추위로 아랄스크 해변은 얼음으로 덮였다. 계획된 이주민의 재이주 숫자가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의 근거가 있다. 국가기선회사는 항해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이주민에게 어로콜호즈로 가는 대신에 우즈베키스탄 중앙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다."

나쁜 일기 때문에 아랄해를 따라 기선으로 재이동하지 못한 약 6,000명의 한인들은 우즈베크의 중앙지역의 솅호즈로 모두 이동하였다. 아무다리아로 항해가 중단되어 팔트크에 머문 850명은 카라칼파키의 무이나크 구역의 마을에 배치되었다. "이 배치로 우즈베키스탄의 정주지로의 한인의 배치는 완료되었다."고 아프레산은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한 총 74,500명 중 아랄해에는 613가구 2,211명이 배치되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다음 해에 일어났다. 1월 21-22일 구리에브 구역 공산당 사무국은 어로콜호즈 '제3인터내셔널'의 한인들의 구리에브 구역으로 이주를 요청하는 탄원에 긍정적으로 답을 한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한인들은 결국은 자신의 본래의 의사 - 그들이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싶다는 뜻을 실현할 수 있었다.

1938년 3월 13일 구리에브 구역 당위원회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구리에브주에 도착한 1,322가구의 한인들을 다음의 절차로 배당한다:

콜호즈의 고기잡이와 국가어류산업에 1,096가구

농업생산(가축, 농사)에 120가구

기업과 산업조합에 50가구

국가조합회사와 기관에 56가구

지역별 및 마을별로는 다음과 같다:

덴기스크 구역에 한인콜호즈 '수찬'과 '트루드리바'에 고기잡이에 300가구, 기업합동(체르타마에브 어류공장)에 150가구, 사프본스크 모터어로소와 재조직된 모터어로소에 26가구

박사야스크 구역에 325가구, 그 중 한인 콜호즈 '빠블로프스크'와 '아방가르드' 고기잡이에 240가구, 그리고 기존의 구역 콜호즈 구성원으로 추가배속된 가구가 85가구

구리에브시는 전체 지역에 295가구이고, 이 중 '제3인터내셔널' 한인 콜호즈에 80가구, 기업합동국가어류산업에 100가구, 카라노비치 명칭 콤비나트(상설 어류공장)에 80가구, 구리에브 모터어로소에 35가구, 산업조합(협동조합) 기업에 50가구, 국가조합과 기관에 55가구

이스폴스콧 구역에서는 기존의 농업협동조합에 추가로 120배속

카자흐스탄공화국 인민위원회소비에트와 카자흐스탄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첸기스크 한인 어로콜호즈 '수찬'과 '트루드리바'의 한인어로 콜호즈를 끌어들이어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한 모터어로소가 조직되었다.

결어

사할린북부 지방의 한인의 중앙아시아로 이주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사할린 한인의 대부분은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극동지역의 다른 한인들과 함께 중앙아시아 카라칼파키와 아랄해로 이주당하였으며 1938년에는 벌써 이 중 일부는 구리에브주 카스피해 연안까지 운송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로에 길들인 한인들은 새로운 정주지에서 이전의 일에 종사할 수 있었다.

(끝)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роткой строко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онд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обыва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3 ноября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сет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онд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Ли Ын Ден и Ким Бора. Они встретились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председателем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Ким Хон Ди, руководителем телепрограммы Уримальбансон ГТРК «Сахалин» Ким Чун Дя, гл.редактором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Бя Викторией. Цель их визита на Сахалин – помощь в программе посещ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2-го поколения корейцев, родители которых умерли, так и не дождавсь встречи с родными на родине. Пользуясь возможностью,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онда хотели узнать больше об истории и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рейские гости также посетили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и мес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бывали на концерте в ККЦ.

Проект «В семье единой» завершился концертом

3 ноябр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ялся концерт, который ознаменовал завершение двух больших грантовых проектов. Ассамблея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ила проект «Уроки дружбы», с которыми посетила 12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области, а РООСК



поставила точку в проекте «В семье единой». В рамках данного проекта были даны концерты в Холмске и Долинске, открыта фотовыставка Ли Е Сика «Возвращение», конкурс детских рисунков по мотивам корейских народных сказок. Проекты состоялись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т день прозвучали мелодии и ритмы корейской, армянской, киргизской и др.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На сцене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выступили ансамбль самульнори «Ханыль», учащиеся школы «Этнос»,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рмя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и киргизской диаспоры, а также названы имена лауреатов конкурса рисунков по мотивам корейских сказок. Собравшихся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ркис Аюпян и президент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Холмские корейцы организовали «Этнос-класс»

6 ноября в центральном доме культуры г. Холмска состоялся семинар «Этнос-класс»,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торого стала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дседатель Пак Ен Сун). Они представили традиционную культуру корейцев в обрядах жизненного цикла. Целью да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является сохранение и популяризация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слушателям поведали о том, как празднуют первую годовщину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толь), представили традиционные национальные музыкаль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и 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стюмы ханбок, показали, как делать почтительные поклоны, спели песню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сыграли на инструментах самульнори.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вызвал мастер класс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Слушатели узнали, как готовится лапша-куксу, яичные рулеты, пульгоги и блюдо из тубу (тофу).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ли продегустировать эти вкусные блюда. Гости оценили мероприятие на «ура».

Депутат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Ансана обсуди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3 ноября делегация депутатов Городской Думы города Ансан посети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й орган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 официальным визитом. Целью встречи стал обмен опытом депутат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а также обсуждение планов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 Надеюсь, что сегодняшняя встреча даст новый толчок для развития и укрепл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нашими городами. Городская Дум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сегда открыта к диалогу и готова развива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по различ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 сказал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родской Думы Владимир Зайцев.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родской Думы города Ансан Дён Сын-Хён также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развит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депутатскими корпусами.

- 25 июля 2011 года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подписания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городским собрание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ей города Ансан. Но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развивались не так активно, как хотелось, - отметил господин Дён Сын-Хён.

Депутат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Ансана договорились исправить ситуацию. Владимир Зайцев предложил организовать еще одну встречу и детально обсудить дальнейшие совмест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 29 августа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исполнится 15 лет со дня подписани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О дружб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городам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Ансан. В преддверии этой даты наши города могли бы составить план встреч, обменов делегациями, иных событий. Например, в честь юбилея побратимских связей с японским городом Асахики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явилась цветочная клумба в сквере, который тоже носит название Асахикива. А в японском городе есть площадь в



чест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там тоже обустроена клумба в честь побратимских связей. Возможно, подобный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был бы интересен и Ансану. Это лишь одно из предложений. Для детального обсуждения предлагаем запланировать встречу в начал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и официально оформить план наших дальнейших действий, - обратился Владимир Зайцев к господину Дён Сын-Хён.

В ходе встречи депутаты также рассказали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сво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Все участники единогласно высказались за то,

что подобные визиты должны приводить к практическим результатам. Например, депутат Николай Артеменко отметил актуальность привлечения 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оров.

Добавим, именно Ансан стал первым городом, с которым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й орган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дписал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25 июля 2011 года). Затем подобные Соглашения были подписаны с городским Собранием города Ваканай в 2012-м году и городским Собранием города Асахикива в 2013-м году.

(Пресс центр Думы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25 ноября в 15 часов в Доме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состоится 10-й молодежный фестиваль-конкурс 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Возраст участников от 7 до 35 лет.

Главные призы конкурса - два авиабилет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Три лауреата в номинации от 7 до 17 лет, три лауреата в номинации от 18 до 35 лет будут награждены ценными призами.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2 ноября по телефонам: 464025, 510482.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노루의 사향을 팝니다!

г. Иркутск, тел. : 8-924- 544-70-82

e-mail : she.xiang@yandex.ru

ooo «мускон - соболь»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476 руб. 28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РК и США снимут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вес боеголовок южнокорейских ракет

Президенты РК и США Мун Чжэ Ин и Дональд Трамп провели во вторник переговоры в Сеуле. Перед их началом глава Белого дома выразил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тем, что Сеул закупает американское оружие, что увеличивает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ь РК и одновременно снижает дефицит в двусторонней торговле. Переговоры состоялись сначала в узком кругу, а затем в расширенном составе. Их итоги были подведены на совместно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отметил, что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снять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вес боеголовок южнокорейских ракет и стремиться к мирному решени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Между тем,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необходимо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на санкционном давлении на Пхеньян. Кроме того, достигнуты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продолж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военной области, в том числе в размещен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 регионе американски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вооружений на ротационной основе. Затронув соглашение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отмети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корейшего проведения переговоров между профильными ведомствами двух стран о достижении справедливых и сбалансированных отношений в двусторонней торговле. Глава Белого дом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запуски Пхеньяном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и проведение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угрожают не только безопасности региона, но и всего мира. Однако США не хотят применять силу против СК. Он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ризвал Пхеньян сделать правильный выбор, вернувшись за стол переговоров,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интереса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Дональд Трамп высказался за справедливый и взаимовыгодный характер соглашения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Саммиту предшествовала официальная церемония приветствия главы Белого дома, прибывшего в РК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визитом.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е в Пхёнчхане подали 92 страны

92 страны мира подали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е,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в Пхёнчхане в феврале 2018 года, сообщили в оргкомитете Игр. Однако СК пока подобного намерения не выразила, хотя она прошла отбор для участия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фигурному катанию в парном разряд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84 страны имеют право на участие в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е в Пхёнчхане. Заявки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по 29 января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Между тем, 2 ноября огонь Олимпиады прибыл на остров Чечжудо,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природным памятником ЮНЕСКО. Общая протяжённость эстафеты олимпийского огня, которая пройдёт по всем провинциям и крупным городам РК, составляет 2018 км, а по острову Чечжудо - 21 км 400 м. Огонь пронесут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2700 факелоносцев, в том числе 85 жителей Чечжудо. Олимпийский огонь покинул остров 3 ноября.

В Чхонджу открое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центр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наслед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центр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наследия (ICDN) будет открыт в городе Чхонджу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Пукто. Как сообщили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архиве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так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ходе 39-ой сессии Генераль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ЮНЕСКО в Париж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роект был принят в ок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202-ом заседани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го совета организации. В число главных задач центра входят меры по сохранению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наследия и разработк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политики, разработка и реализация программ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о всему миру, ориентируясь на развивающиеся страны, а также регистрация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наслед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вело санкции против 18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бъявило в понедельник о внесении в «чёрный список» 18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в рамках односторонних санкц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прекращени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ядерной и ракетной программ Пхеньяна. Объектами санкций стали руководители 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сотрудники филиалов пят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анков в таких странах как Китай, Россия и Ливия. Среди н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объединённого банка развития в Москве Ли Ын Сон,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анка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КНДР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Чу Хёк и в Ливии Ку Чжа Хён, представитель банка Тэсон в Китае Кан Мин.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заявл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вс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граждане, ставшие объектами санкций, участвовали в поставках Пхеньяну денег,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оружия массового уничтожения. В заявлении также выражена надежда на то, что данные меры внесут полож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перекрытие незаконных валютных потоков в СК. Также было заявлено о стремлении продолжать усилия по мирному решени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путём диалога. Между тем, решение Сеула имеет символ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поскольку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ями нет финансовых связей. В март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ответ на четвёртое ядерное испытание, проведённое Пхеньяном,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несло в санкционный список 40 граждан и 30 организаций СК. После пятого ядерного испытания в список были добавлены 36 частных и 35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RKI)

Трамп договорился о продаже Южной Кореи атомных подлодок США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доказал, что является умелым бизнесменом и использует каждую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зарабатывания денег. Под предлогом защиты от угрозы со стороны КНДР Трамп сначала в Японии, а теперь и в Южной Кореи, договорился о продаже этим странам американского оружия на миллиарды долларов. Источник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знали, что Сеул намерен закупить у США атомные подлодки США, а также иные виды оружия.

Напомним, что в рамках своего турне по странам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Дональд Трамп сначала побывал в Японии, а вчера прибыл в Южную Корею. Сегодня он намерен направиться в Китай.

Как и ожидалось, Дональд Трамп во время своего турне очень много говорит об угрозе со стороны Пхеньяна. При это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фактор" активно применяется в деловых целях. Трамп сначала в Японии, а теперь в Южной Кореи сумел убедить своих союзников, что защита от КНДР невозможна без закупок дорогостоящего американского оружия.

"Мы договорились начать переговоры о приобретении Южной Кореи самых современных видов американского оружия. Это необходимо для повышения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как самой Кореи, так и наших совместных с США возможностей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 заявил в ходе совместно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Мун Чжэ Ин.

Эти слова пришлись по душе Дональду Трампу, который похвалил "великолепное американское оружие". "Оно очень необходимо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а для нас это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и снижение торгового дефицита с Южной Кореей", - откровенно заявил американский лидер.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К пока не стали раскрывать подробный список вооружений, которые они хотят приобрести, но признали, что речь идет 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видах оружия, а также о системах,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повыс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в плане наблюдения за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а также иные виды оружия".

Затем было раскрыто,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намерена приобрести у США атомные подлодки. Речь идет о многоцелевых субмаринах класса "Лос-Анджелес". По словам близких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К источников, Сеул намерен купить как минимум одну подлодку США, а как максимум три.

Все это должно стать ответом Юга на создание КНДР своих подводных ракетноносцев, оснащенн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ми ракетами. Просочилась также информация, что РК за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американскими спутниками-шпионами.

В Сеуле отметили, что они собираются не только закупить у США готовые виды оружия, но также получить передовые обор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что позволит Кореи наладить собств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ряда систем.

Также Южная Корея намерена продолжить собств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создания крупных подлодок, тогда как субмарины из США позволят обеспечить оборону под водой, пока Юг не наладит создание своих подводных кораблей с атомными силовыми установками.

Отметим,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еще 14 лет назад, при президенте Но Му Хене, пыталась создать свои атомные подлодки, но в итоге отказалась от программы из-за негатив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этому США и Китая. Бывший тогда у Но Му Хена глав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 был известен как один из самых активных сторонников программы создания корейских атомных субмарин. Победив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Мун сразу же заявил, что возобновит тот проект. Похоже, что Мун Чжэ Ин решил сдержать обещание.

Еще одним из итогов переговоров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Мун Чжэ Ина в Сеуле стало решение увеличить присутств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видов оружия США. Речь идет о регулярных полета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ов США, размещение истребителей пятого поколения, подходы к Кореи атомных подлодок и авианосных группировок США.

(Олег Кириянов, РГ)

Корейцы уделяют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балансу между работой и домом

В РК растёт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считающих баланс между работой и домом важнее работы.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7 ноября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К. Оно проведено среди 39 тыс. человек, проживающих в 25.704 домохозяйствах. Все респонденты старше 13 лет. Исследование проводилось по пяти областям. Это социаль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участие населения в жизни общества, культура и отдых, потребление и доход, работа. 43,1% респондентов указали на приоритет работы перед семьёй. Это почти на 10% меньше, чем в 2015 году. 42,9% отметили равную важность и того и другого. Эта отметка выросла на 8,5%. Таким образом, всё больше корейцев уделяют внимание семье. 26,5% респондентов указали, что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их финансовое положение улучшится. В 2015 году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л 22,8%. Между тем, 57,6% считают, что они относятся к среднему классу по уровню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Эта отметка выросла на 1,1%.

(KBS World)

В РК растёт уровен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смартфонов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 РК все шире используются смартфоны. Учитывая это, большая часть финансовых операций и получение какой-либо информации происходит через мобильные гаджеты. В представленном 6 ноября докладе аналитиче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Nielsen Korea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среди людей,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уют интернет, 19% делают это только через мобильные гаджеты, 75,1% применяют для этого компьютеры и телефоны, а 5,9% только компьютеры. Интересно отметить, что среди людей, предпочитающих только мобильный интернет, 30,1% приходится на возрастную группу от 50 до 59 лет, а 23,3% - от 60 до 69 лет. Таким образом, больше половины корейцев, предпочитающих только мобильный интернет, старше 50 лет. Это связано с простотой и удобством смартфонов.

(RKI)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 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в стране отметила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Тожеств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чались с праздничного шествия. Под звон колоколов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прошли от Воскресенского собора к площади перед новым Историческим парком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Здесь участников праздника ждал концерт с народными песнями и танцами. На площади развернулись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молодежных площадок. Здесь выступали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острова, проходил показ мод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ервиса «Русская краса», а также танцевальный флэшмоб «Марафон» и выставка-презентац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Кроме того, все желающие в этот день с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блюда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хонь.

- Мы очень любим этот праздник, в этот день всегда весело и люди такие дружные, как одна семья. Сегодня мы отложили все дела и пришли сюда, чтобы встретиться с друзьями, послушать песни, 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 увидеть экспозиции нового мультимедий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арка. Ждем не дождемся его открытия, - поделилась эмоциями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тьяна Пономарева.

Презентация интерактивных экспозиций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арка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стала одним из самых ярких событий Дня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ервые 20 посетителей смогли посмотреть на них без очереди. Ими стали счастливицы, которые выиграли билеты во время викторины. Она проходила здесь же на площади перед Историческим парком.

- Отраднo видеть здесь столько людей, интересующихся истoрией своей Рoдины. Думаю, экспозиции нового истoрического парка не смогут оставить равнодушными ни oднoго из них, - oтметил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й на празднике Владыка Тихон.

В новом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на площади почти 7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буквально оживает вся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благодаря 400 единицам смонтированного мультимедий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20 интерактивных столов, 330 проекторов, 20 кинект систем). Уникальным местом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станет единственны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2-ти метровый купольный кинотеатр. Посетители, разместившись на мягких креслах-пуфах, смогут посмотреть различн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фильмы.

Желающих увидеть экспозици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арка оказалось настолько много, что бесплатные билеты были разобраны буквально за час и сразу на все предстоящие выходные дни. Однако посетить его можно будет и после праздников. Экспозиции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каждую пятницу, субботу и воскресенье. Пригласительные билеты на экскурсии можно бесплатно приобретать уже с 7 ноября и до Нового года в кассах мемориала Побед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числе лидеров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жилья детям-сиротам

Такую оценку дала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правам ребенка Анна Кузнецова в ходе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который посвятили обсужден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ов опеки и попеч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сохранение семьи.

В заседании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уководители таких отраслей как: медицина, образование, социальная защита, сотрудники органов правопорядка и так далее.

- Позитивный момент, который обращает на себя внимание, - это обеспечени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можно смело приводить в пример другим. Я знаю, что сахалинскими властями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редоставлять разрозненное жилье для сирот – квартиры в существующих жилых кварталах. Это верное, так как способствует гораздо лучшей социализации и адаптации выпускников детских домов, чем многоквартирный дом, построенный исключительно для них, - отметила в своем вступительном слове Анна Кузнецова. Она также высоко оценила организацию работы дет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бласти. Советники омбудсмена в преддверии ее визита посетили их с инспекцией.

В ходе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его участники обсудили методы социаль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ого сопровождения семей. Речь шла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психолого-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родителей и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ой работы,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сохранение семьи. Говоря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ов опеки,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й на заседани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нтон Зайцев,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работы,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сохранение детей в кровных семьях.

- Большую роль здесь играет профилактика. Необходимо задействовать все возможные средства и создать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сохранения ребенка в семье, начать работать с родными малыша до того, как ситуация приведет к изъятию его из семьи. Чаще всего родители просто неспособны преодолеть различные трудные жизненные ситуации. Отсутствие конструктивных навыков поведения, стресс, низкая родительская и социальная компетентность, неадекватные стереотипы воспитания, нарушения привязанности - вот на какие симптомы следует направлять усилия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сиротства, - сказал Антон Зайцев.

Завершая рабочий визит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детский омбудсмен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открытом уроке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посвященном Дню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и пообщалась с островными журналистами.

Сахалинцы написали Большо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диктант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овали десять площадок. Тестирование на знание этнографии проходил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огликах, Охе, Корсакове, Поронайске, Макарове, Тымовске, Томари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Организаторы «Большого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го диктанта» -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Удмурт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работу по проведению мероприятия взяли на себя областные ведомства, курирующие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ней и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Диктант писали все желающие. Таковых в регионе набралось более 450 человек, основная часть - школьники, студенты и пенсионеры. Были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работники образования, культур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библиотечной системы. Каждый очный участник акции получил памятный сертификат о прохождении диктанта.

В течение 45 минут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ответить на 30 тестовых заданий диктанта на знание страны и ее жителей. Вопросы касались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аздников,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языков, фольклора, быта народ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нашей стране. 20 заданий – одинаковые для всей России и ближнего зарубежья. Остальные составлены с учетом региональной специфики. За правильное выполнение всех заданий можно набрать 30 баллов.

- У нас уникальная страна, - 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я Мурашова. - Россия - это государство с многообразием народов и языков. Я думаю, что эта акция будет привлекать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людей. Мы должны с уважением относиться к культуре и традициям всех народов, которые проживаю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принимают меры, чтобы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Курильскими островами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одготовило ряд решений,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обеспечить регулярную перевозку пассажиров и грузов по ключев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Напомним,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теплоход «Игорь Фархутдинов» отправляется на плановый ежегодный ремонт. На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острова Итуруп, Кунашир и Шикотан могут остаться без регуля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ассажирского сообщения с Сахалином. Для жителей отдаленны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может стать очень проблематичным выезд на лечение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и федеральные клиники, в отпуск.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негативных социальных последствий,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ело серьезную работу с предприятиям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ми перевозки людей и грузов на Курилы. В период отсутствия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выполняющая полеты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Курильск (остров Итуруп) и Южно-Курильск (Кунашир),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увеличит количество рейсов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Возможно и несколько иное решение. «Аврора» может направлять на Курилы самолеты большей вместимости. Это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по перевозке пассажиров без наращивания количества рейсов.

Также было обращено внимание, что из-за ремонта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в особенно сложной ситуации окажутся жители острова Шикотан. Теплоход сюда заходить перестанет. С Кунаширом, где находится аэропорт «Менделеево», остров будут связывать только 12-местный плашкоут «Дружба» и вертолет, способный взять на борт не более 18 человек.

- По нашей просьбе муниципаль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Докер», которое возит пассажиров между Кунаширом и Шикотаном на плашкоуте, выведет на эту линию еще одно аналогичное судно - «Надежда», -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ергей Садовников. - Расписание движени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огласовывает руководство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а. И, если будут пожелания пассажиров, мы можем увеличить частоту вертолетных рейсов между Кунаширом и Шикотаном.

«Лососевому» вопросу посвятили двухдневную научную конференцию

О современном состоянии и перспективах развития лососев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говорили участники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которая прошла в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м институте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океанограф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бсудить краткосрочное и долгосрочное прогнозирование нерестовых подходов и возможного вылова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российских происхождения собрались ученые, рыбовод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рыбац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и эколог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нициатором проведения конференции выступил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срыболовство поддержало идею и организовало мероприятие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 докладами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

миссии по анадромным рыбам северной части Тихого океана (NPAFC) Владимир Радченко, главны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НИ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океанографии Михаил Глубоковский, главны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института общей генетики им. Н.И. Вавилова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Лев Животовский,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НИ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океанографии Игорь Мельников и друг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траслевой науки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к участникам мероприятия обратился куратор рыбной отрасли регион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атолий Макоедов.

- Дан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ризвана дать ответы на множество вопросов, связанных с путинной текущего год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научные подходы к оценке запасов и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ю вылова и определить перспективы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а лососевых. Желаю вам плодотворной работы и интересных докладов, - сказал зампред.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Анатолий Макоедов,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лососевое хозяй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обходимо выстраивать с учетом средн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численности популяций горбуши, ориентируясь на суммарные уловы в пределах 20-50 тысяч тонн в нечетные годы и 10-30 тысяч тонн - в четные. Он заострил внимание на важности формирования новой научной основы ведения лососевого хозяйства,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на надежное прогнозирование. Речь шла также о существенном сокращении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мысла лососевых и об эффективной системе подготовки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рыбной отрасли.

Особый интерес у слушателей вызвала тема, посвященная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разведению красной рыбы. Речь также шла о состоянии запасов промысла горбуши в местах ее массового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а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Тихого океана. Еще один из акту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 перспективные модели развития лососевого хозяйства в России.

Новый центр для реабилитации детей-инвалидов откроют на Сахалине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его размещен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строили большое здание. Общая площадь всех помещений - 6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оходить курс реабилитации здесь смогут 150 ребят.

К проблеме оздоровлени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по здоровью власти Сахалина подходят комплексно - этой осенью в регионе уже ввели в работу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взрослых инвалидов. По своему оснащению и возможностям он не имеет аналог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его арсенале - процедурные, залы лечебной физкультуры, подводного массажа, сауны и лечебных душей, кабинеты профильных врачей, водолечения и грязелечения, эрготерапии, иглорефлексотерапии, когнитив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УВЧ, свето- и электролечения,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и групповой психотерапии. Есть отделение протезирования, ингаляторий, фито-бар, компьютерный класс,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 и бассейн. Поставлено самое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от миров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К примеру, уникальный роботизированный комплекс «Локомат Про». Он позволяет буквально поставить человека на ноги – вновь научить ходить. Сейчас идет наладка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мощь жителям с нарушениями слуха, зрения,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а также имеющим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е заболевания в учреждении начнут оказывать с нового года.

Подобным образом планируется оснастить и новый центр для реабилитации детей-инвалидов. Его здание состоит из трех блоков. В составе учреждения – отделения круглосуточного и днев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реабилитации, медицинский блок, помещения для учебных занятий, спортивный и музыкальный залы, библиотека, столовая. На прилегающей территории есть спортивная игровая площадка и гараж для служеб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Для удобства посещения расположена новостройка в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города по адресу: проспект Победы 46-а. Уровень технической готовности объекта сейчас оценивается на 90 процентов.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его введут в предстоящем декабре.

Сегодня ребята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проходят реабилитацию в центре «Преодоление». Действующие площади не в состоянии вместить всех, кому необходима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ая помощь – в регионе около 1900 таких детей. Поэтому по просьбам их родителей и исходя из существующих потребностей было решено построить новый, современный корпус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уже в первый год работы пройти курс реабилитации здесь смогут все дети-инвали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региона Елена Касьянова. – Для детей из районов и их родителей будет оборудован стационар на 25 мест. Оборудование планируем поставить самое лучшее, оно уже заказано и сейчас в пути на остров. Услуги центра будут бесплатными.

В дальнейшем на базе нового учреждения власти Сахалина намерены также открыть группу присмотра за детьми-инвалидами в дневное время, по типу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детского са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돌 맞은 한인 차세대 교류의 장 '2017 세계한인차세대대회' 6일 개막

24개국 150여 명 참가, '스무 살의 열정으로 세상을 잇다'
슬로건으로 4박 5일간 열려

전 세계 한인 차세대 리더들이 참가하는 '2017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6일(월)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세계한인 차세대대회는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지회장은 행운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며 타인과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구축,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전 준비, 성공적인 의사 결정을 그 방법으로 제시했다. 또, 한인 차세



활약 중인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와 한인 사회의 미래를 논의하고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의 주최로 24개국 150여명의 리더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스무 살의 열정으로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10일(금)까지 서울과 강원도 평창을 오가며 진행된다.

이 날 오후 4시 30분에 열린 개회식은 차세대 리더들과 이재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등 국내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재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은 환영사를 통해 "여러분은 동포 1세대의 헌신과 노력의 결실로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활약하는 한인 동포사회의 주역이 되어야 할 차례"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거주국을 가깝게 연결하는 가교이자 소중한 자산으로서 동포사회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과 기여를 당부하며, 이번 방한 기간 동안 다채로운 고국의 정취를 느끼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에는 역대 참가자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주제 영상 상영과 대형 떡 케이크 커팅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회 20주년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조강연에는 글로벌 지식 산업의 선두주자이자 세계적 과학기술 전문서적 미디어 출판사 엘스비어의 지영석 회장이 '행운이 함께하는 커리어를 만드는 방법(Building A Career Full of Luck)'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가자들에게 현지 사회와 모국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환영만찬에서는 유현덕 한국캘리그래피협회 회장의 '수묵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로 20주년을 다시 한번 자축했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차세대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끝으로 대회 첫날 공식 일정이 마무리됐다.

한편, 올해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20년 역사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부터 모국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체험 활동까지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대회 둘째 날인 7일(화)에는 FLC 토크 콘서트, FLC 세계시민포럼과 FLC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재외한인 차세대로서의 고민과 역할을 논의하고, 핵심 분야의 정보 교환과 협력을 도모했다. 다음 날인 8일(수)에는 서대문 형무소 견학 및 위안부 수모 집회 참가 일정을 통해 모국의 뼈아픈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한 참가자들은 9일(목) 강원도 평창으로 이동해 한식, 한복과 전통놀이 등 모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점프센터에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대형 메시지 별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우리말로 깨닫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말하기에서 청중과의 호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청중은 듣는 사람이지만 역설적으로는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말하는 이는 청중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어떤 때는 실제의 소리이기도 하고, 마음의 소리이기도 하다. 청중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말하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청중과 호흡이 잘 이루어지는 연설 혹은 강의가 훌륭한 것이다.

청중은 화자의 시간을 예측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기분 좋게 들지만 예측 시간이 넘어가면 집중도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지루해 한다. 그래서 청중의 반응을 잘 느끼면서 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청중이 매우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면 주어진 시간을 넘기는 것은 말하기에서 금기에 해당한다. 그 전에 있던 감동이나 감사의 마음마저 없앨 수 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말하기가 시간을 넘기는 말하기가 아닐까 한다.

이야기가 길어지고 재미가 없으면 당연히 청중의 눈은 시계를 향한다. 이런 의미에서 강의자 뒤쪽, 즉 청중의 정면에 시계가 있는 것은 최악의 인테리어이다. 시계는 강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고, 청중은 강의자를 보는 구조여야 한다. 물론 그래도 청중은 어떤 방법으로든 시간을 알아낸다. 손목시계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보거나 하면서 말이다. 시간으로 청중을 속일 수 있는 강연자는 능력자다.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강의를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강의가 절정으로 향해 갈 때 강의자는 동시에 마무리를 준비해야 한다. 그 때 내가 못한 이야기에 초조해 하지 말고 청중의 반응에 민감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청중의 반응에는 상관없이 말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최악의 결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잘 조절했을 때만 가능한 논리다. 시간이 지나가면 미관식은 고통이 된다.

중중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라는 말을 이어가며 청중의 인내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끝으로라는 말을 하면 이제 절반 이야기하였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 만큼 이야기를 질질 끈다는 말이다. 요약하고, 강조하고, 반복하는 말로 시간을 보낸다. 의미 없는 수사법일 수 있다. 청중에게는 고통이 되고, 그 전에 내가 한 좋은 말도 다 날아가 버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무서운 청중들은 이럴 때 의사표시를 한다. 몸을 비비꼬는 것을 넘어서 책상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투덜거리는 소리를 강의자가 들을 수 있게 수군거린다. 다들린다. 가방에 책을 넣기도 하고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 문자를 시작하기도 한다. 청중이 이런 끝을 준비하기 전에 불현 듯 강의는 끝나야 한다. 아쉬움이 남아야 한다는 말이다. 여운이 남아야 한다는 의미다.

전 현 선생님은 강의 시간에 알람을 맞추어 놓고 강의를 하신다. 알람 소리가 오리 우는 소리여서 무척 당황스런 즐거움도 있다. 오리가 울면 망설임 없이 강의를 끝내신다. 좀 더 하실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말이다. 청중은 아쉽다. 선생님 강의야말로 더 듣고 싶은 강의인데도 미련 없이 강의를 끝내신다.

강의는 마무리도 중요하다. 청중이 듣기 싫어한다면 그만두어야 한다. 이는 만고의 진리다. 사람들이 싫어한다면 더 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의 미학은 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사할린한국교육원 행정 직원 채용 공고

1.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가. 채용인원 : 1명(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음)

나. 담당업무 : 일반 행정, 한국어 통·번역, 한국어 교육 지원, 자료 관리 등

2. 응모자격

가. 2017년 12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는 자

나.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다. 한국어 통·번역 가능자

라. 컴퓨터 활용 가능자(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마. 공무 수행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

3.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17.12.1.부터 근무, 수습기간 3개월 후

근무 성과에 따라 재계약 (1년 단위)

나. 근무시간 : 09:00 ~ 18:00

4. 제출서류

가. (필수) 한국어/러시아어 이력서 1부 (별도 양식 없음)

나. (필수) 한국어/러시아어 자기소개서 1부 (별도 양식 없음) *사진 포함

다. (필수) 경력 증명서(졸업증명서 포함) 1부

라. (선택) 어학능력 및 컴퓨터 사용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마. 면접 통과자는 건강진단서, 범죄 사실증명서를 제출

(내용에 문제가 있을 시 채용이 되지 않음)

5. 서류제출 시한 : 2017. 11. 24. (금) 18:00까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기간 연장

6. 서류 제출처(사할린한국교육원)

가. 제출 방법 : e-mail 혹은 직접 방문 접수

나. e-mail 주소 :

joohwank@korea.kr

다. 문의처 : 50-56-96

7.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2차 면접 실시

(면접대상자는 서류 전형 통과자에게 개인적으로 통보함)

*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Наталья Бяки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художник, отразила на бумаге все самые яркие, светлые, добрые и искренние эмоции людей — шаржи никого не оставили равнодушными.

Сергей Удовенко и Тимофей Волков задушевно исполнили русские народные песни. А участник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ансамбля из Азербайджана, танцевально-го клуба "Серок" и школы-студии восточного танца "Багира" погрузили гостей музея в море зажигательных и завораживающих ритмов танго, сальсы, бальных и восточных танцев, сообщает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사할린주 9개월간 신생아 4752명 태어나

사할린주 첫 9개월간 자연적 인구증가가 나타났다. 신분등록소들에서는 4752명의 출생이 등록되었다. 그중 쌍둥이와 세쌍둥이는 64명이다. 사망자 수는 4467명으로 기록되었고 자연적 인구증가는 2016년 유사 시기에 403명인데 반해 올해는 285명이다.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지역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니와, 쿠릴스크, 노글리키, 북쿠릴스크, 남쿠릴스크 지역으로 주내 6개 지방자치체에서 나타났다.

혼인신고는 3087건, 이혼신고는 2062건으로 작년에 혼인 3043건, 이혼 2013건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사할린주 이민관리국 정보에 따르면 1월-9월 기간에 사할린과 쿠릴에는 17903명이 방문, 그중 59,9%는 영주 거주를 위한 목적이었다. 사할린주를 떠난 이주민은 16096명으로 그중 72,8%는 거주지 등록에서 삭제되었다. 사할린주 내에서는 6767명이 주거지를 이전했고, 사할린으로 이민자는 증가하여 1807명에 달했다고 사할린주 통계국 홍보실은 전했다.

За девять месяце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вет появились 4752 ребенка

За первые девять месяцев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 естественный прирост населени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органах ЗАГС 4752 родившихся, в том числе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64 многоплодных родов (двойни и тройни). Число умерших по региону составило 4467 человек. Естественный прирост составил 285 человек,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6 года прирост составлял 403 человека. Превышение числа родившихся над числом умерших отмечено в шес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нивском, Курильском, Ногликском,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3087 браков и 2062 развода против 3043 браков и 2013 развод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и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январь-сентябрь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рибыли 17 903 человека, из которых 59,9% —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ыбыло 16 096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72,8% сняты с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учета по прежнему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преде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еняли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6767 человек. Миграционный прирост составил 1807 человек,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тата.

<고르니 워스두흐>, 자원봉사자 전체 모임

<고르니 워스두흐> 사할린스포츠종합단지는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사람들, 이 문제를 연구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전체 모임을 개최한다. 모임은 11월 14일 16시 30분 산악스키학교(유즈노사할린스크, 고리키 거리 7/4)에서 조성된다고 스포츠종합관광단지 홍보실이 전했다.

오는 겨울철 <고르니 워스두흐> 스포츠종합단지 협력팀에 현재 약 40명의 사할린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가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스포츠종합단지 지도부는 현재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며 스포츠 기관과 지역 스포츠 지도부는 2019년 2월 8-17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될 대규모 <아시아 아이들>동계스포츠게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르니 워스두흐>스키장 자원봉사 지원자는 반드시 지원서를 작성하여 메일 sales.ski.gv@gmail.com 전송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51-11-10.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оведет общий сбор волонтеров

Сахалин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оведет общий сбор для тех, кто уже объявил о своем желании быть волонтером, и тех, кто еще только изучает этот вопрос. Встреча состоится 14 ноября в 16.30 в здании горнолыжной школ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ица Горького, 7/4),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ТК.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около 40 сахалинцев решили войти в дружную команду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новом сезоне, но как отмечают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мплекса, люди нужны еще, так сегодня учреждение, так же, как и спортивные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готовятся к приему масштабных зимних игр "Дети Азии", которые состоя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8-17 февраля 2019 года.

Желающим стать волонтерами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необходимо заполнить [анкету](#) и отправить ее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sales.ski.gv@gmail.com.

Подробности по телефону: 51-11-10.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한국방문 체험수기 공모

새고려신문사는 한민족의 공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한-사할린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문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할린 주민 누구나

공모부문: 한국방문 체험수기(글 종류 및 언어 무관)

작품주제: 모국방문(적십자사), 초청검진(국립국제보건의료재단), 재외동포재단 초청사업(한국어교사연수,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영비즈니스포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을 통해 체험한 대한민국 방문 후기 및 소감

공모기간: 2017년 12월 20일까지 새고려신문사로 우편 및 메일 발송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최우수 1명-300달러, 우수-1명 200달러, 장려-2명 100달러) 수여 외 우수작은 새고려신문 게재 예정.

사할린주 창설 70주년

사할린주한인회 25주년 기념 축제

제10회 사할린 한민족청소년 노래자랑

일시: 2017년 11월 25일 15시

장소: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로지나»문화회관

주최: 사할린우리말방송국

후원: 한국여성가족부, 사할린주한인회, 아시아나항공 사할린지점

시상내역: 대상 : 사할린 - 서울 왕복 각 부분별 항공권

학생 7-17세 1,2,3 등 시상

대학생 청소년 18세-35세

1, 2, 3 등 시상

참가신청은 11월 21일까지입니다.

동포여러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사할린우리말방송국 (46-40-25)

주한인회

(51-04-82)

사할린한민족청소년노래자랑
조직위원회



реклама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mun»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mun»,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